

참선자가 고쳐야 할 '고질적 폐단' 지적



⑬ 무자화두 참구법(하)

⑥ 눈을 깜박거리는 동작(揚眉瞬目)에서 무(無)자의 의미를 찾지도 말라(不得向揚眉瞬目處構). 양미순목(揚眉瞬目)이란 선문답을 할 때에 "무엇이 부처냐"고 물으면 말로 대답하는 대신 눈을 깜박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방' '침묵' 등과 같이 무언의 동작으로 상대방을 깨닫게 하거나 선의 세계를 보여주는 몸짓입니다. 이것을 전체작용(全體作用, 선의 경지를 몸짓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언어, 학문적 참구·화려한 문학적 수사 표현 경계해야 빈둥대는 無心無事·겉으로만 깨달은 척 하는 행동 비판

그런데 당시 참선자들 중에는 눈과 눈썹을 깜박거리는 동작이 다른 아닌 깨달은 자의 모습이라고 여겨서 그것으로써 자신의 깨침으로 삼았습니다. 말하자면 근대 한국선에서 마학(馬學)을 선이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양미순목을 선인양 호도했던 것입니다. 양미순목을 깨달음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⑦ 화두를 언어적으로 해석하지도 말라(不得向語上作解). 어로상(語上)이란 언어를 가리키고, 작활계(作活計)란 해석, 풀이 등을 가리킵니다. 화두를 언어적으로 풀이하여 '이 뜻이다' '저 뜻이다'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는 화두를 놓고 여럿이 모여 토론(세미나)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말하자면 언어적 수작을 가리킵니다. 또 이 이면에는 당시 언어적 문학적 수사 표현을 표현하고자 하는 태도, 학문적으로 선을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즉 文字禪에 대하여 비판한 것입니다.

①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不得在無事甲裏). '아무 일 없이 지내는 것이 선'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무심(無心) 무사(無事)를 능사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주 선사(조주)가 말한 무심, 무사는 번뇌가 없는 '무심(무번뇌심)' '무사(무번뇌사)'를 말한 것인데, 이것을 착각하여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즉 날이면 날마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하다가 놀러 다니다거나 또는 좌선을 한다고 해도 화두를 들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대혜 스님이 목조선을 '삿된 선'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항목입니다. 무사선(無事禪)의 병폐를 지적한 것입니다.

⑧ 거기처(擧起處)를 모두 알아버린 척 하지 말라(不得向擧起處承當). '거기처(擧起處)'란 조실스님이 선법문을 하거나 또는 '방' '할' 등 활구소식을 보이는 것(擧起, 거랑)을 말

하고, '승당(承當)'은 '아는 척' '깨달은 척'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선사가 법상에 올라가서 선법문을 하거나 활구소식을 보이면 즉시 일어나 아는 척, 깨달은 척 화답하는 것을 말하는데, 깨달지도 못했으면서 겉으로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고: <서장(書狀)> '답 진소경 후'에 보면 '부득항개구처승당(不得向開口處承當)'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개구처 승당'이 바로 '거기처 승당'입니다. '개구처'는 언어에 관한 것으로서 선법문 등이고 '거기처'는 동작에 관한 것으로서 '방' '할' 등입니다.)

⑨ 문자 속에서 인용 고증하려고 하지도 말라(不得向文字中引證). 이것은 경전이나 논서 또는 선어록 등 책에서 '화두'와 관련된 부분을 뜯어다가 해석하거나 천착하는 태도를 지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경에서는 이렇게

게 말했으니 이 뜻이다' 또는 '어떤 선어록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으니 이 뜻이다' 이런 식으로 화두를 참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헌적 지식적으로 화두를 탐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타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⑩ 미혹한 채 깨닫게 되기를 기다려서도 안 된다(不得將迷待悟). '장미대오(將迷待悟)'를 '장심대오(將心待悟)'라고도 하는데 미혹한 마음(迷心) 즉 어리석은 마음을 뜻합니다. 화두를 참구하지는 않고 "언제쯤 깨닫게 될까?" 하고 기다리는 것, 또는 막연히 "언젠가는 깨닫게 되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는 백 년이 가도 깨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열 가지를 분류해 보면 첫째는 화두를 분별심이나 일음일어로 참구(탐구)하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언어적, 학문적으로 참구하지 말라는 것이고, 셋째는 화려한 문학적 수사(修辭) 표현을 나타내는 문자선을 경계한 것이고, 넷째는 명칭하게 알아만 있는 것으로 선을 삼고자 하는 목조선에 대한 비판이고, 다섯째는 무사선에 대한 비판이고, 여섯째는 깨달은 척 겉으로만 행동을 하는데 대한 비판입니다. 이것은 모두 무자화두를 참구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 열 가지는 대혜 스님의 입장, 즉 간화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루 속히 시정해야 할 문제점이었습니다. 특히 ⑤에서 ⑩까지는 당시 참선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폐단, 즉 문제점이었고 진각국가 핵심은 말하고 있습니다.

■ 윤창화 민족사 대표

신행계시판

● **봉인사 한길정진원 집중수행**-남양주 봉인사 한길정진원은 5월 1일~6월 3일 세 차례의 집중수행을 진행한다. 5월 1~10일, 13~22일, 25일~6월 3일 진행되는 집중수행은 우레와 닮은 이 지도법사로 사미타와 우빠사나를 지도한다. 매회 최대 40명 정원으로 동참금은 30만원이다. 사미타는 명종 그림 평은 지(止) 등으로 번역하며 사미타를 수행하면 삼매 또는 선정의 결과를 얻게 된다. 우빠사나는 우리말로 뛰어난 통찰, 사물의 본성을 꿰뚫어 볼, 직관, 여실히 알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미타 수행을 통해 사색한 실제의 궁극적인 정신 물질 그리고 원인인 연기에 관해 무상 고 무아의 본성을 꿰뚫어 통찰하는 것이 위빠사나이다. 사미타 우빠사나 수행으로 번뇌를 끊고 열반을 성취하는 길을 제시하는 봉인사 수행에 동참해볼까. 한 달간 참가수행도 가능하다. (031)574-5585, www.bonginsa.net

● **선운사 템플스테이**-고창 선운사 템플스테이의 문을 활짝 열었다. 매주 주말 행사 운영되는 1박 2일 표준형 프로그램과 1박2일~3박4일까지 원하는 대로 구성되는 평일 휴식형 템플스테이가 마련된다. 사색예배, 자비예배, 참선 실수, 티종치럼, 포교강좌와 차담 나누기, 선운사 부도전 석상양 녹차밭 포향 명상 등이 준비된다. (063)661-1375

● **대흥사 초의스님 선다일여 프로그램 운영**-해남 대흥사가 5월 28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초의스님 선다일여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5월 28일~6월 1일, 18~22일, 7월 30일~8월 3일, 6~17일 열리는 '초의스님 선다일여' 외에도 8월 12~17일 다도 아카데미 수련회가, 7월 1일~8월 30일 수시로 템플스테이가 열린다. (02)575-7766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바른길 아바타 센터

전통주사는 본가는 언제나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해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02)512-2736
http://www.avatatar.com
E-mail: heegyun@avata21.com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一句'에 큰 깨달음을 얻다

⑬ 끈달라게시 장로니

끈달라게시 장로니는 왕사성의 조신한 부처님 딸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행장에 끌려가는 도둑을 보고 바로 사랑을 빠졌다. 우여곡절 끝에 그녀의 부모가 돈을 치르고 도둑을 석방시켜 팔과 결혼시켰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지만, 그 도둑은 처가집의 재산과 보석에 관심을 가졌을 뿐이었다. 하루는 도둑이 아내에게 보석을 모두 가지고 산으로 가지고 하였다. "사형당할 뻔 할 때 그산의 산신들이 자기를 구해주었으니, 가서 공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에 이르자, 도둑은 속셈을 드러내어 그녀를 죽이고 보석을 뺏으려 하였다. 그녀는 "보석을 모두 드릴 터이니 목숨만 살려 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남편을 죽이지 않고서는 자기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친척에게 피를 낸 그녀는 "마지막으로 예를 올리고 싶으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도둑의 주위를 경건하게 돌다가, 그가 밤잠을 때 밀어서 절벽 아래로 떨어뜨렸다. 이런 일을 겪고 나니 그녀는 집에 돌아가고픈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 나무에 가지고 온 보석을 모두 걸어놓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났다. 해마다 보니 여성 방랑고행자들이 사는 곳에 이르러, 자신도 고행자가 되었다. 그들은 모든 궤변론의 1000가지 문제를 가르쳐 주었고, 영리한 그녀는 금방 모든 것을 배웠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 그 질문에 모두 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를 스승으로 모시라고 일러주었다. 그녀는 논쟁 상대를 찾아서 인도 전체를 돌아다니며 실력을 겨루었다. 따라서 그녀는 '염부제(閻浮提: 인간 세계)의 여자 방랑고행자'란 뜻으로 잠부깨빠빠바지까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그녀는 사위성에 오게 되었다. 탁발하러 시내로 들어가기 전, 모래로 두둑을 쌓아 놓고 예우게니나 나무 가지를 거기 꽂아 두었다. 이것은 도전에 응할 논쟁 상대를 구한다는 표시다. 사리불

장로가 그 도전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천 가지의 질문을 했는데, 사리불은 모두 대답했다. 이제 사리불이 질문할 차례였다. 사리불은 이것만을 질문했다. "그 하나(一)란 것은 무엇인가?"

대답하지 못한 그녀는 가르침을 청했다. 사리불은 먼저 비구니가 되어야 한다고 대답하여, 끈달라게시라는 법명으로 비구니가 되었다. 그리고 불과 2-3일 후에 아라한이 되었다.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비구들이 기원정사에 계신 부처님께 들었다.

"끈달라게시 비구니는 법에 대해 몇 마디만 들었을 뿐인데, 어떻게 아라한이 될 수 있었습니까?"

비구들은 또 방랑고행을 하기 전에 도둑놈 남편과 싸워 승리한 일에 대해서도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 계승을 물으셨다.

"의미 없고 열반에 이르지 않는 천 마디의 구절을 읊조리는 것보다, 들어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단 한 구절을 읊는 것이 더 낫다네. 정전에서 백만 명을 정복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제 자신을 정복한 사람이 참으로 위대한 정복자일세."

이상은 <법구경 이야기>에 나오는 기록이다. 끈달라게시 장로니는 "하나란 것은 무엇인가?"란 질문에 큰 의심을 발해 출가했으며, 마침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단 '한 구절(一句)'을 듣고 불과 3일 만에 아라한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미루볼 때, 간화선에서 중요시하는 화두의 중요성과 '말끝에 단박 깨침(言下大悟)'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하나란 것은 무엇인가?"란 질문은 '만법귀일 일귀하처(萬法歸一 歸何處)' 화두와 유사하다. 이 공안을 참구할 때는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가?' 라고 들기보다는, "그 하나는 무엇인가?"하고 의문을 가지라는 것이 만공 스님이 가르친 참구법이다. 이 '하나'는 일심이자 진여자성(眞如自性), 불성, 성품, 본래면목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이는 불법을 체득한 스승이 지혜의 안목으로 생사대사(生死大事)를 해결한 '궁극적인 한마디(一句)'를 통해 타파될 가능성이 높다.

김성우 객원기자

'하나란 무엇인가'는 궁극적 한구절 만공 스님이 가르친 참구법과 유사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사철(대우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전라도 : 010-2311-0157
강원도 : 019-396-1110 경상도 : 011-327-7697
충청도 : 010-8674-23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발, 다리, 허리가 불편하십니까?

귀의 삼보하요고
무자비한 해도 발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길 빌원 합니다.
사부대중의 발로 인한 몸 건강을 생각, 발명 특허를 획득한 지압결찰을 보급합니다.

하루종일 서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한 **최소시!!**
초극세사·살리콘·동 99% 함유 일체 소재로 **발발새 제거, 무중 예방!!**
장인정신으로 수작업으로만 만들었습니다.
만행화 대표 박해운 합장

특허 10-0806337호

지압·동 결찰

조극세사
살리콘
동 99%

가격 15,000원
*사이즈 : 230-280

▶ 본사·전시장: 서울 중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1호선 종각역 2번출구 100미터
▶ 문의·주문: 02)733-5715 011-9000-5715
▶ 계좌: 우리 178-08-109613 (예금주: 박해운) 합장



민속죽염 20년 전통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함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기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분
가 루 지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지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지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지죽염 230g 50,000원

2번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 목재 골조 평당 45만원
다크로스목계통 : 180*180
다크로스목계통 : 180*125
다크로스목계통 : 100*100
원목목재 상판 : 150*125
특색 브러시

* 환로출력, 내화벽돌, 관널 등 시공가능



◆ 물로 청소하는 평상 1800*1030*350(mm) 가격 : 190,000
눈비를 맞아도 색이 지는 평상 (연결 이동 사용가능하며 보관설치가 간단함)

지구산업
www.bangaro.com / 조립식평상
TEL (063)323-3010~1 / FAX (063)323-3012

계좌번호 : [농협] 505055-56-005933 예금주 : 지구산업 박영호
전품목부가세별도 전국대리점모집